

2026년 6월 21일

인도: 정영준 목사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
*찬양 ----- 다같이
• Here I am to Worship/ How Great is Our God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288)
참회의 기도 ----- 다같이
베드로전서 1:18-21
봉헌 ----- 다같이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 ----- Joey Wang 집사
성경봉독 ----- 인도자
마태복음 10:26-39
특별찬양 ----- 찬양대
나의 피난처 예수
설교 ----- 정영준 목사
“What Do You Fear?”
*찬양 ----- 다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결단의 기도 ----- 다같이
*축도 ----- 정영준 목사

*표는 일어서서
현금은 입구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현금: highland.giving@gmail.com)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목사) hellofromhighland@emweb.com (EM Web)

◀참아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되도록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비성숙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많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잘 삐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이고 나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같이 여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 때문에 감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한 사람이 온 가족 여행을 망칠 수 있으니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여행에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성도들도 다양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고 성장이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의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요,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희생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목-

◀ 광고 ▶

- 금요 특별 찬양예배 및 졸업예배: 6/26 금 7:30pm
- 구역예배 안내: 1구역(6/28, 12:45pm 교회), 2구역(6/28, 3:45pm 교회), 3구역(6/28, 3:45pm 교회), 4구역(6/28, 3:45pm 교회)
- 협력기도: 김영자(김택문), 이맹표, 이오덕, 남궁운자, 김형곤(김순자)
- 다음주 기도: 최의순 장로/ 금요예배 기도: EM
- 이번 주 봉헌위원: 서정아 권사, 다음주 봉헌위원: 김유선 집사
- 친교: 이번주- Phil Kim 성도 가정/
다음주- Chris Oh, Christine Ha, Grace Choi
- 6월 뒷정리: 1구역

◀ 모임안내 ▶

- 금요 찬양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매주 수요일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정영준(Jonny)
교사 Chris Choi, Jemimah Chae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케냐 - 강충만
말라위 선교단 - 남성우
NOVO(NK) - 서예레미야
Pipeline Ministry - 심수영
REI - James Kang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